

재난 없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하며

계간 「방재와 보험」이 100호를 맞이하여 특집에 게재할 원고를 청탁받고 보니 화협 홍보부에서 근무했을 때의 감회가 새롭다.

필자는 1984년 3월 1일부로 홍보2과장에 부임하여 1989년 11월 1일까지 5년 8개월을 「방재와 보험」, 「화협보」 등 주로 홍보에 관련된 제작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1973년 10월 방재기술 전문지로 반년간 「화재안전점검」지가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었으나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화보법에 부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전문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1984년 봄호(제22호)부터 계간지 「방재와 보험」이 탄생되었다.

「방재와 보험」은 내용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지면도 대폭 늘리고 발행부수도 늘려 전국 국가기관은 물론 전국 대학교, 연구기관, 특수건물 소유주 등으로 배포하였다.

당시는 5공 시절이라 모든 출판물이 등록도 까다롭고 검열을 거쳐 발행되었으며, 대중성 있는 전문지, 독자에게 읽히는 잡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홍보2과장에 부임하여 당시 제일 시급한 현안이 「방재와 보험」지 등록 및 발간이었는데, 발행계획은 수립된 상태였으나 잡지발행에 문외한인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잡지를 발행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랐으며,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두홍 | 협회 전 총무부장

계간지라 1회 발행하고 나면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도 그 3개월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편집계획에 들어가고, 원고청탁 및 수집, 원고교정, 사식의뢰, 수정교정, 인쇄, 납품, 배포, 원고료 지급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 또한 당시 외부인사 한 분에게 원고를 청탁할 때 최소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내용도 충실하고 시사성도 있는 잡지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조선일보 만화가 오룡 선생의 시사만화는 당시 4컷 한편에 거금 십만원이었다. 섭외하기도 어려웠지만 간혹 비판적인 작품을 보내와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또 서울대공원 김정만 동물부장의 소방관 역할과 화재정보기 역할을 하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때 원고청탁 등 때문에 사계절 서울대공원으로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코스(주차장에서 좌측 비상통행로)를 안내받아 공짜로 동물구경도 했던 즐거운 추억도 있다. 저명 작가들의 콩트, 당시 치안국 송재철경감의 화재 원인조사실무, 생활기상 등 다양한 내용을 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힘겹게 느껴진다.

당시는 잡지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자증이 있었는데 신분증에 크게 붉은 글씨로 '기자'라고 쓰여 있어 여러 곳에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교통위반 때마다 사용하여 무사히 통과했던, 지금도 웃음이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방재와 보험」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전문성과 대중성을 살리되, 화재는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재상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게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재와 보험」지 100호를 편집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난없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큰 역할과 화협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바란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방재와 보험」지 200호를 위하여!



소방안전과 『방재와 보험』

다양한 일들
중 추려서 기
사 된 신문 속
딱 찬 내용을
보면, 바쁜 사회
구조들이 팽이처
럼 실 사이 없이 돌
아가는 것을 볼 수 있
다. 많은 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팽이는
사회적 안전 공간이 늘 확보되어야
만 안정된 사회가 유지된다. 예기치 않는 일로
인생을 중도 하차하는 일들이 종종 신문을 통
하여 볼 수 있다.

고밀도지역에서 건축물의 대형
화가 시작되어 가던 1974년도에
미국에서 John Guillermin 감독
이 메가폰을 잡은 「The Tower-
ing Inferno」 영화가 우리나라에
서 상영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일종의 재난영화로 많은 국민들에
게 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대형건물 화재
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시점
에서 『방재와 보험』
계간지가 1973년도
창간되어 지금에 이르기
까지 100호가 발행되는 30년
역사의 바탕 속에 우리 사회에서 발
생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재해 예방과 소방에 필
요한 新방재기술동향, 체험 등이 많이 기재되
어 특수 사업장의 방화관리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김정기 | (주)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 부장

계간지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100호 발간에 관한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방재와 보험』을 통하여 소방안
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예측
소방안전 관리를 통한 365일 소방
안전 100%를 유지할 수 있어 회사

의 자산과 종합레저 비발디파크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님들의 머리카락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다.

해상에서 선박들은 항해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기상 악화로 인하여 안개가 자욱하게 낀 연안에서 초긴장 상태로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서행을 하는 선박들은 안전공간을 확보하고자 노심초사 할 때 먼 육지에서 보내주는 등대불이 작은 정보를 주어 희망의 안전항해를 할 수 있었다.

방재와 보험이야말로 안개가 잔뜩 낀 소방 연안에서의 안전과 희망의 등불이고 유·무형의 방화업무에 크게 기여한 기술정보지이다. 30년 역사의 전통이 이어져온 뒀안길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소방안전을 소홀하게 되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재앙을 불러오며 과거에 대연각 호텔 대형화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앙을 우리 사회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재앙(災殃)》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풀어보면, 「물과 불이 지나간 곳에는 앙상한 뼈만 남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災殃(재앙) : 災 = 川(내 천)+火(불 화)
殃 = 歹(앙상한뼈 알)+央(가운데 앙)

모든 소방시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이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은 후 많은 이들은 소방시설관리에 소홀하게 된다. ‘이 정도면...’ 하는 소방안전관리 매너리즘과 소방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자본적 투자를 생산성으로 보는 기업인식 부족에서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하게 된다.

사고의 원인은 항상 99.9%의 매너리즘에서 발생되며 0.1%의 원인자에 의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 선진 소방안전을 통한 국가의 직·간접 손실 제로화 목표를 위하여 365일 소방안전 100%를 실천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 방화관리자의 기술력에 따른 이론 무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 소방시설 유지보수와 자본적 투자를 단순히 소비로 보는 시각에서 생산성으로 보는 기업인식이 필요하며,

-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국가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공동 사회적 안전우선 보호대책은 모든 이들의 건강한 행복 추구를 위함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은 예비가 없기 때문에 모두 소방안전에 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로 그곳에 30년의 정열이 함께한 기술 정보지 『방재와 보험』이 소방안전 지킴이로서 더욱 우뚝 서길 바라며,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늘 사랑 받는 계간지가 되기를 기원한다.